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회고와 전망

이원석*

- I. 머리말
- II. 준비기(2005-2013): 〈고전세미나〉와 다르마칼리지의 출범
- III. 시험기(2014 전반): 〈존재와역사〉의 설계와 실제
- IV. 확립기(2014 후반-2017 전반): 표준화 지침과 ACE사업
- V. 변모기(2017 후반-2021.9 현재): 하향 축소와 ‘코로나 19’
- VI. 평가 및 과제와 혁신
- VII. 맺음말: 전망을 곁하여

■ 국문요약

본고는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공통교양강좌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중심으로 〈세계명작세미나〉를 회고하고 검토하며 전망한 것이다.

본교 교양교육원은 2005년부터 고전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듬해에 개설된 〈고전세미나〉는 〈세계명작세미나〉의 기반이었다. 본교는 2013년 2학기 획기적인 신교양교육체제 3.0을 확정하고, 교양교육원을 교양학부대학인 다르마칼리지로 격상시켰다. 2014년 1학기부터 다르마칼리지는 5개 분야로 구성된 〈세계명작세미나〉를 열고 4개 분야 12학점을 수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세계명작세미나〉는 본교를 대표하는 교양강좌가 되었다. 그 가

* 동국대학교, 조교수, lws3904@dongguk.edu

운데 <존재와역사>는 팀프로젝트로 5개의 주제에 따라 역사와 철학 분야의 주요 명작 5권을 독해하고 발제 논평하며 질의 응답하는 세미나 강좌였다. 1권의 명작은 2.5주 동안 진행되었다.

그러나 강좌의 운영은 엄격하고 이상적인 설계, 과도한 수강 부담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 수업방식의 통일성 결여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에 2014년 8월 다르마칼리지는 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수업방식을 통일하는 <세계명작세미나>의 표준화 지침을 발표하였다. 2학기부터 준용된 이는 강좌 설계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이었다. 이로써 <세계명작세미나>는 기틀을 확립하였고 2015년 본교의 ‘ACE 사업’ 선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계명작세미나>는 2017년 2학기 변곡점을 거쳐 2019년까지 하향 축소되었다. 그 내용은 교수의 강의 확대, 9학점으로의 축소, 공통 필독서의 1권 감축, 강좌운영과 평가기준의 조정 등이다. ‘코로나 19’의 유행을 배경으로 2020년 1학기부터 필자는 전반부 6주에 명작의 강의, 후반부 8주에 세미나를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팀프로젝트는 유지되었지만, 세미나는 발제작문과 감상비평으로 반분되었다. 여기에는 비대면 수업의 특성과 함께 학생의 부담 경감이 반영되었다.

<존재와역사>의 평가는 2018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핵심역량과 학습성과에서 발전하며 공통교양의 평균을 넘었다. 특히 창의융합능력은 보다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그밖에도 <존재와역사>의 다양한 과제가 고찰되었고, 학교 차원에서 1,2학년의 기초학력 제고, 교수의 강의부담 완화와 처우개선 등의 혁신방안도 검토되었다. <세계명작세미나>는 단기적으로 축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희망적이다. 이는 담당 교수를 중심으로 다르마칼리지와 학교 당국의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주제어 ●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세계명작세미나>, 다르마칼리지, 표준화 지침, 발표와 논평, 평가, 과제, 전망

I. 머리말

동국대학교(이하 본교로 통일)가 교양교육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교양학부대학인 다르마칼리지로 정식 출범한 것은 2014년 3월 1일이었다. 이는 총장 직속의 특성화 위원회와 이를 계승한 학부대학 추진단의 설계와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다르마칼리지는 신교양 교육과정 3.0을 출범시켰다. 그 가운데 <세계명작세미나>는 <지혜와 자비>, <존재와 역사>, <경제와 사회>, <문화와 예술>, <자연과 기술>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4개의 분야 12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공통교양강좌였다. 이에 따라 <세계명작세미나>는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 나아가 본교를 대표하는 핵심 교양강좌로 부상하였다.

다르마칼리지의 신교양체제 3.0은 후술하듯이 2015년 교육부의 대학교육선도대학, 즉 ‘ACE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일정한 변화도 수반되었다. 여기에는 외부적으로 정부나 교육부 및 사회와 시장의 압력, 그리고 내부적으로 학교 당국의 정책과 학생들의 여론이 변수로 작동되었다.¹⁾ 공교육의 기능 저하와 사교육 시장의 팽창에 따른 중등교육의 학력 편차는 대학에서도 문제이다. 게다가 ‘코로나 19’와 함께 비대면 수업이라는 색다른 환경이 가세하고 있고, 그 터널의 끝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와 교육의 환경 변화는 장차 심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을 대표하는 <세계명작세미나>도 이제 7년 반이 지났다. 지금은 냉정하게 <세계명작세미나>의 강좌 전반을 되돌아보고 현재적 평가와 장래의 전망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본고는 <존재와역사>²⁾의 영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지만 <세계명작세미나>도 겸하여 논의할 것이다. 필자는, 우선 2005년부터 시작된 교양교육원의 <고전의 이해>가 이듬해

1) 이러한 경향은 근래 4차 산업혁명[디지털혁명]과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배경으로 융복합을 중시하는 교양교육의 변화 요구에도 확인된다. 다르마칼리지 교학팀,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방향 연구』, 2018.2 참조.

2)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강좌명칭으로 붙여 쓰는 본교의 관례에 따랐다.

〈고전세미나〉를 거쳐 2014년 교양학부대학의 〈세계명작세미나〉로 발전하는 준비기를 추적하겠다. 이어 2014년 1학기는 시험기, 2014년 2학기-2017년 1학기는 확립기, 2017년 2학기부터 2121년 2학기 초까지는 변모기로 나눈 다음 그 기간마다 〈세계명작세미나〉의 설계와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실제 수업을 결합하여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그 평가와 한계나 문제점을 검토하고 혁신과 전망을 고민하겠다. 본고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지만, 필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³⁾

II. 준비기(2005-2013): 〈고전세미나〉와 다르마칼리지의 출범

여기서는 2005년 교양교육원의 〈고전의 이해〉가 2006년의 〈고전세미나〉를 거쳐 2014년 다르마칼리지의 출범과 함께 〈세계명작세미나〉로 나아가는 과정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본교의 교양교육을 총괄하는 교양교육원은 국내 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2004년에 설립되었다. 이듬해인 2005년부터는 획기적인 고전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는 교양교육원의 신설에 따른 재편의 일환으로(교양교육원학사운영실, 2012, 1-6), 1학년을 대상으로 2학점씩 총 4학점으로 구성된 교양필수 〈고전의 이해 1·2〉이다. 교양교육원은 18명의 강사를 선발한 다음 학기당 8권씩, 모두 16권의 고전을 담당하여 1년 동안 초보적인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불교를 비롯한 문·사·철의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이 포함되었다. 〈고전의 이해〉는 주교재 16권과 보조교재 16권 가운데 분야별로 8권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고전의 이해 1〉의 경우에는 『대승기신론소』, 『역사란 무엇인가』, 『오리엔탈리즘』, 『꿈의 해석』, 『판단력 비판』, 『종의 기원』, 『과학혁명의 구조』 등이 포함되었다. 〈고전의 이해 2〉는 교재의 수준을 낮추었지만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다.⁴⁾

3)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표문과 발제문, 토론문과 논평문, 발표토론과 세미나, 미니퀴즈와 쪽지시험은 동일한 의미이다.

교재의 선정은 커다란 문제였다. 이는 수강생의 수준과 교재의 내용 등 현실적 측면보다 전해지는 해당 고전의 명성에 따른 결과였다. 선정된 8권의 교재는 질량적 측면에서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교수들도 수업 준비를 위해 교재 연구에 허덕였다. 강의준비에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은 강좌마다 1년 동안 지급된 매월 10만의 교재연구비를 훨씬 초월하였다. 게다가 2주에 한 권의 고전을 소화하고 매달 1편의 독후감을 제출하는 원칙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점차 <고전의 이해>는 형해화되어 실패로 귀결되었다.

<고전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는 2006년도부터 1학년 학생에게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양필수 3학점으로 축소된 것이었다. 구성은 <고전의 이해>와 동일하였지만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재의 난이도를 낮추는 동시에 분야별로 2-5권의 교재를 제시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고전세미나>는 처음에는 8권의 교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6권이 되었고, 자유토론, 맞장토론, 발제논평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고전세미나>는 교양교육의 성공적인 강좌로 평가되어 후일 <명작세미나>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

교양교육원은 2012년 1학기부터 교양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재편하였다. 이는 교양교육이 전문성보다 보편성, 분과학문에서 융복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것이었다(교양교육원, 2012, 3-6). 여기서 기초교양은 <불교와 인간> <작문과 발표> <고전세미나> <진로지도>였는데, 그 관건은 <작문과 발표>와 <고전세미나>였다. 이를 위해 교양교육원은 2011년 12월부터 초빙절차를 거쳐 23명의 강의 초빙교수를 선발하였다. 기존의 교수 3명을 포함하면 26명의 대규모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작문과 발표>는 기존의 2명을 포함한 6명이었고, <고전세미나>는 인문과학 7명, 사회과학 4명, 기존의 1명을 포함한 자연과학이 3명

4) 고전의 이해 교과목 개발연구위원회 편저, 『고전의 이해 1 교안』,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5.2; 고전의 이해 개발연구위원회 편저, 『고전의 이해 2 해설집』,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5.8 참조.

으로 모두 13명의 교수진이 갖추어졌다. 강의초빙교수는 연봉이 3,000만원, 2인 1실의 연구실, 2인당 전화기 1대, 주당 3강좌 9시간을 담당하였다. 이해에는 수강생이 강좌마다 35명으로 제한되었다(교양교육원, 2012, 5-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전세미나>는 문학과 예술, 사회와 문화, 역사와 철학, 과학과 기술의 네 분야로 구성되었다. 교재는 문학과 예술에 『파우스트』, 『오이디푸스왕』, 『춘향전』, 『백년의 고독』, 『데미안』, 『그리스 로마 신화』, 『무소유』, 사회와 문화에 『슬픈 열대』, 『자유론』, 『감시와 처벌』, 『국부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오리엔탈리즘』, 『군주론』, 역사와 철학에 『성찰』, 『장자』, 『삼국유사』, 『열하일기』, 『사기』, 『맹자』, 과학과 기술에 『카오스』, 『과학혁명의 구조』, 『의산문답』, 『플하우스』 등이었다. 강의교수는 임의로 각 분야의 1권과 기타 2,3권을 더하여 모두 6,7권을 교재로 선정할 수 있었다. 물론 교재는 시일의 경과와 함께 기존 교재의 삭제와 추가 선정이 반복되었다. 강의의 개요는 “단선적 독서습관을 극복하고” “비판적 반성적 독서능력을 함양하여” “발표와 토론[세미나]을 진행”하는 것이고, 강의 목표는 “스스로 고전의 주요 논점과 사고방식을 찾아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고전들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스스로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후 교양교육원은 융복합·내실성을 추구하는 신교양체제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고전세미나> 고전의 난이도를 중심으로 3등급으로 분류하면서 기초고전을 설정하는 표준화를 계획하였다. 이는 종합적인 시야와 사고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독서목록을 개편하며 강의보다 세미나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분야별로 강의하기 이전의 기초강의로 동서양의 전통과 근대를 구분하여 『춘향전』, 『사기』, 『오이디푸스왕』, 『나는 고발한다』 가운데 한 권을 선택하여 강의를 시작하는 것이었다.⁶⁾ 그 결과는 2013년 10월 『고전세미나 가이드 북』으로 결집되었다. 이는 위의 4권

5) 이원석, 「2012학년도 제1학기 고전세미나 강의계획서」, 참조. 고전세미나의 전반적 설계와 실재는 이원석, 「고전세미나의 설계와 강의의 실제」, 교양교육원, 『2012-2학기 교양교육원 전체 교수 워크숍』, 2012.8.28 참조.

6) 이관수, 「2013학년도 신교양과정을 위한 고전세미나 개편방향」,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2012-2학기 교양교육원 전체 교수 워크숍』, 2012, 8, 28 참조.

을 중심으로 한 <고전세미나>의 기초강의교재였다(동국대 교양교육원, 2013, 30-45). 강의초빙교수의 임용을 통한 <고전세미나>의 충실화와 확대는 <세계명작세미나>의 분류나 인적 자원의 골격을 갖춘 측면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12년 초에는 이미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 ‘ACE사업’의 핵심 교육 과정, 당시 본교 김희옥 총장의 의지 등에 의해 이듬해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이 예고되었다(동국대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2012, 5-7). 이에 따라 2013년 5월 총장 직속의 특성화위원회(위원장 황종연 교수)가 신설되었다. 특성화위원회는 동국대학의 교육정책성 정립, 동국대학을 대표하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공·교양·비교과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학사제도 및 교육평가제도 실태분석과 개선, 학사지원 조직 간의 협력 조율 및 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것이었다. 그 목표와 역할은 인성과 교양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대학의 독창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21세기 세계시민으로서의 지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 양성, 전공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 전인적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설계, 교육의 독창성과 수월성에 기반한 자긍심 고취와 평판도 제고였다.

이에 특성화위원회는 2013년 5월말~8월까지 8차에 걸쳐 교육프로그램 개발회의를 진행하였고, 우리나라 중요 대학의 교육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경쟁대학 및 국외 주요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본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비교 분석하거나 장단점을 도출하여 벤치마킹을 시도하는 토대였다. 이에 따라 특성화위원회는 1차적 연구 개발 과제로서 새로운 교양교육과정 개발 시안을 마련하여 2013년 8월 14일 총장에게 보고하였고, 9월부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교 당국은 2013년 9월 특성화위원회를 해체하고 학부대학설립추진단으로 격상시켰다. 학부대학설립추진단은 2014년 1월~2월 기존 강의초빙교수를 일괄적으로 해임하고 재초빙과 신규 초빙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고전세미나>는 <세계명작세미나>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분야를 <존재와 역

사), <경제와 사회>, <문화와 예술>, <자연과 기술>로 조정하는 동시에 <지혜와 자비>를 추가하였다. <세계명작세미나>는 기초교양에서 공통교양으로 바뀌었고, 5개 분야 가운데 4개 분야의 12학점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되었다. 초빙된 16명의 강의교수는 <세계명작세미나>를 주당 4개 강좌, 12시간을 강의하였고 연봉도 소폭 인상되었다. 2014년 3월 1일 교양학부대학인 다르마칼리지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초대 학장에는 학부대학설립추진단장이었던 국어국문학과 황종연 교수가 취임하였다. 다르마란 산스크리트어로 만물을 지배하는 진리·법칙·이법으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 도리, 규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 특유의 학문과 수행정신을 보여주는 용어이다.⁸⁾ 이런 과정을 거쳐 2014년 1학기부터 교양학부대학인 다르마칼리지가 출범하였고, <세계명작세미나>는 본교의 공통교양의 대표가 되었다.

참고로 당시에 자유, 관용, 창의 등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한 공통교양체제는 <21세기 시민>(2학점), <글쓰기>(3학점), <리더십 & 프론티어십>(2학점), <지역연구>(2학점), <영어>(PASS)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세계명작세미나>를 비롯한 공통교양 체제 3.0의 개편은 후술하듯이 교육부의 대학교육선도대학, 즉 ‘ACE사업’의 선정에 기반을 제공한 것이었다.

Ⅲ. 시험기(2014 전반): <존재와역사>의 설계와 실제

1.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설계

<세계명작세미나>는 <지혜와 자비>에 불교종립대학의 특징이 반영되었

7) 이후에도 고전세미나는 <세계명작세미나>와 병행되다가 2018년 2학기를 끝으로 14년 만에 폐지되었다. 다르마칼리지, 『교양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9.1.29, 6쪽.

8) 이상 본교 교양교육원에서 교양학부대학 다르마칼리지로의 전환은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 <세계명작세미나>의 제 I 부 교양교육원과 고전교육,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 기초교양 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4.12.4. 참조.

고, 분야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학점 미취득자는 계절 학기를 통하여 재수강하도록 결정되었다. 아울러 각 영역에는 PD교수가 임명되어 강좌 운영에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에는 초대 PD로 철학과의 유훈우 교수가 와서 초기 5년 동안 강의의 기초를 구축하였다. 동시에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주요 명작 5권에 대한 동영상 강의가 제작되었고, 학기마다 저명학자를 초빙하여 1회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매년 <세계명작세미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에세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에세이를 포상하였고, 그 결과는 『우수 에세이 선집』으로 출판되었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2014년 2월에 배포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운영메뉴얼』과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계획서」에 강좌의 설계가 구체화되어 있는데, 전자가 보다 자세하다. 여기에 보이는 강좌개요와 강의목표는 다소 길고 추상적이지만 인용한다.

민주화사회, 기술공학사회, 거대화사회, 다문화사회, 정보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 강좌는 인간 존재와 역사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 명작들이 그 동안 제시해 온 아이디어들이 인간의 정체성을 바람직하게 세워 가는데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철학과 역사 관련 지식 이해와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미나는 철학·역사 명작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철학·역사 텍스트들의 내용에 의거한 철학·역사 지식은 철학·역사 연구와 교육에 있어 기초가 되는 학문 토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있어 중요한 지식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개설 목적은 생산성을 염두에 둔 ‘표준적인 지식’을 얻는 것과 차원 높은 명상적인 ‘개인적 것’의 두 가지이다. 이를 위해 ① 역사란 무엇인가? ②영웅과 사회·역사 발전 ③ 욕망 사랑 아름다움 ④ 국가와 시민덕성 ⑤ 삶과 초월 등을 주요 토픽으로 설정하고, 이들 주제와 직접 관련된 주요 명작을 읽고 토론하며, 주요 토픽(Topic)과 연관관계(Association)가 있는 보조명작을 참고한다.9)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지정된 5권의 철학·역사 명작들을 토픽, 연관 관계, 어커런스(Occurrence)의 체계에 의하여 독서하고 토론함으로써 철학·역사의 표준적인 지식을 얻고, 이를 통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강좌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텍스트와의 만남’, ‘타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수강생 스스로 질문을 생성하게 하고,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찾은 질문의 답을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또 동료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며, 좋은 질문을 선별해 보기도 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안목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 선정된 질문에 대한 불충분한 만남과 교류를 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만남을 갖게 함으로써 반성과 성찰을 통한 존재적 변화에 이르도록 한다.(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운영매뉴얼, 2014, 2-4).

강좌의 기본 설계는 다음과 같다. 강좌는 40명을 대상으로 주당 3시간, 75분씩 2회, 총 16주에 걸쳐 32회 강의한다. 수업은 객관적 진리나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참여하는(Personal participation), 수요자 중심의 주체적 학습 방식이다. 5개 주제별로 각각 한 권의 주요 명작을 독해하고 관련 논지를 발췌독한 다음 조별 발표와 토론, 세미나 등을 통한 학습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에세이를 작성한다. 수강생들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주요 명작을 완독한다. 주요 명작으로 구성된 60분가량의 동영상 5편의 내용은 명작에 관한 기본 정보와 내용 소개 및 명작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 주제 예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주요 명작과 보조 명작 및 발표 자료를 지참하여 수강한다. 수업은 4명 1조로 10개조를 편성하여 발표와 토론을 각각 2권씩 담당하여 발제문과 토론문을 작성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팀프로젝트이다. 세미나는 우선 15~20분의 발제, 10~15분의 지정토론을 이어 자유토론과 교수의 논평으로 이루어진다. 발표문

9) 『존재와역사 명작 세미나 강의운영매뉴얼』, 2014.1, 2쪽.;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계획서』, 2014.2, 3쪽.

과 논평문은 1주일과 2일 전에 이클래스에 올린다. 물론 발제와 발표문, 토론문의 작성에는 교수의 피드백이 수반된다. 과제물로는 매달 명작마다 에세이 1편, 한 학기 모두 4편의 에세이를 제출한다. 강의의 구성은 교수의 강의 20%, 학생의 발표와 토론이 80%이다.

수업은 주요 명작과 보조 명작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는 완독이나 발췌독이 가능하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한 5개 영역의 주제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 결과 ① 역사란 무엇인가는 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 ② 영웅과 사회·역사 발전은 사마천의 『사기』, ③ 욕망 사랑 아름다움은 플라톤의 『향연』, ④ 국가와 시민덕성은 칸트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⑤ 삶과 초월은 『명심보감』으로 결정되었다. 주요 명작에서 사마천의 『사기』는 11편의 발췌독, 논문인 칸트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과 기타 주요 명작은 모두 완독한다. 보조 명작은 주요 명작과 비교·반대의 관점을 제공하거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여 명작의 함의를 확대, 심화시키는 도서이다. 양자는 통일성, 자율성, 용이성으로 결합되어 있다. 당시 주요·보조 명작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의 《제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의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2021, 42-43).

평가는 학습자의 만족도나 성취도 등 양적 결과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교수학습 목적과 연계하여 학습자의 학습 활동, 태도 변화 등 질적인 과정을 중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총점 1,000점 아래 세분화된 배점을 적용하였다. 조별 발표는 1회당 150점, 2회로 300점, 지정토론은 1회당 100점, 2회로 200점, 합하여 모두 500점이다. 개인 평가로 미니퀴즈가 5회 100점, 개인토론이 1회당 10점으로 모두 10회에 100점, 에세이가 명작 1권당 50점으로 4회에 200점, 출석 100점이다. 여기서 조별발표와 지정토론은 이성적·감성적 측면의 조화, 특징적인 논점과 시사점의 파악 등으로 평가되지만 창의성·정합성·타당성을 중심으로 하는 토론평가서로 진행한다. 미니퀴즈는 새로운 명작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요 명작과 동영상 강의에서 선택형·단답형·서술형으로 출제한다. 개인토론은 조별발표와 지정토론 이후에 개별적으로 질문한 횟수를 계산하여 최대 100점까지만

부과한다. 에세이는 주제의 참신성, 논리 전개의 정합성, 해당 명작에 대한 이해도, 근거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성, 자료 해석의 타당성, 저작의 윤리성으로 평가한다. 출석은 임의의 시간에 체크하여 결석, 지각, 이석, 조기퇴석을 구분하지 않고 보다 엄격하게 감점하며, 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2회에 -20, 3회 -40, 4회 이상은 과락으로 처리한다. 발표와 논평의 결석은 출석 점수의 감점에 더하여 팀별 평가 점수를 완전히 혹은 절반을 감점한다. 증빙서류의 제출 시에 결석은 감점하지 않지만, 팀별발표와 지정토론의 결석은 절반을 감점한다. 학점은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 상대평가의 한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부여하고, 최우수 에세이 작성자는 평가점수보다 2등급까지 높은 학점을 부여할 수 있었다.

세부 강의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1주에는 강의소개, 조 편성 안내, 선정된 명작의 이해가, 2주에는 선정된 명작에 대한 이해와 조편성이 모두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결국 1,2주에는 교수의 강의로 오리엔테이션과 5개의 주요 명작의 개략적 이해 및 조의 편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조의 선택, 개인 에세이 구상, 발제 준비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학기 말의 3회, 1.5주는 종합토론이나 예비일로 편성된다. 그 사이에는 하나의 주요 명작을 대상으로 조별발표와 지정토론이 2주에 4회, 0.5주의 종합토론과 강의 정리가 있다. 결국 하나의 주요 명작에는 모두 2.5주, 전체 명작은 모두 12.5주가 소요된다. 중간고사는 없다.

마지막으로 조별 구성과 명작 담당은 가능하면 골고루 명작을 독서하도록 배치한다. 조별 구성은 40명을 대상으로 2명이 한 팀, 두 팀 4명이 한 조로 모두 10조가 된다. 10개의 조는 조별발표와 약정논평을 모두 담당하지만, 해당 명작은 5권을 서로 나누어 중복을 피한다. 발표와 토론의 주제는 발표조가 준비하거나 교수가 제시할 수도 있다. 개별토론은 발표조와 논평조는 물론이고 패널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질문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명작별 종합토론은 패널 토론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를 개별발제하거나 교수가 보충강의하며 발표토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전체로 보면, 조별 발표와 지정토론은 20회, 명작별 종합토론이 5회 진행된다.

2.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실제

<세계명작세미나>의 본교 1,2학년의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강좌이다. 이에 따라 1학기의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학년, 특히 1학년 학생들은 12년 동안의 주입식 교육에 젖어 있었고, 주체적 문제의식과 비판적 시각이 일정 정도 결여되었으며,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생들은 고전의 독해와 글쓰기, 에세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발표와 토론의 세미나 방식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세계명작세미나>는 알찬 내용과 높은 수준으로 설계되어 수강생들에게 강도 높은 연습과 학습을 요구하였다. 양자 사이의 괴리는 적지 않았다.

교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역사와 철학을 동시에 전공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5권의 명작도 교수자의 연구에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것은 기껏해야 한 권 정도였다. 이는 교수의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수강생의 적극적 수업참여와 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이에 수반된 다양한 평가와 발제문·논평문·에세이의 피드백은 모두 교수의 부담이었다. 필자의 경우, 주중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피드백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필자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추진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강조하였다. 우선, 명작의 독해와 비판은 강의의 기본이었다. 수강생들이 주요 명작을 독해한 내용을 기초로 저자나 명작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세우고, 명작의 한계나 문제점과 과제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적 이해를 통하여 명작을 해체하는 동시에 창조적 재구성을 시도한다. 둘째, 학생은 주체적 능동적 존재로 수업에 참여한다. 명작에는 정답이 없다. 유명한 교수나 석학, 심지어 교수가 말한 내용조차 자신의 견해와 무관하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견해라도 스스로 찾아낸 것이 정답에 근사하며 가장 중요하다. 교수는 방향과 범주를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다. 강좌의 주체는 바로 학생들이고 수업은 학생주도형이다. 그래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규정되었다. 셋째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세미나의 교육방법론을 결합한 것이다. 명작의 독해에는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 비판의식이 강조된다. 이는 명작의 해체나 재창조와 관련된 것으로 ‘Why’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명작은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병폐의 치유, 혹은 희망제시[今古의 會通]와 관련되거나 개인과 사회의 점점 찾기[物我的 折衷]의 매개가 된다. 물론 수업은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넷째는 학생들에게 비판적 독해와 자신감의 제고 및 발표·작문·토론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취업 준비에도 도움을 준다. 수강생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돌아보고 삶의 책임감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의 주체적 발전과 변혁의 동력도 제공될 것이다. 그 결과로 〈존재와역사〉는 수강생들에게 희망적 인생을 만들어갈 계기가 될 것이다.¹⁰⁾ 이상은 필자가 내린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교육적 사상적 토대로 지금도 유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강좌는, 주요 명작 5권을 중심으로 전체나 중요부분(『사기』만 해당)을 독해, 발표, 토론, 비판하는 팀프로젝트 세미나 수업이다. 복사물과 PPT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하고, 교수가 보완 설명한다. 암기식이나 학문적 접근은 지양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명작을 독해, 비판, 해체, 재창조하는 습관을 배양한다. 명작의 시대적 배경과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사상사적 의의나 역사적 위치 등을 강조한다. 가능하면 한국의 현재적 관점에서 비판적·창조적 이해를 중시한다. 세계적 석학을 논리적·현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해당 명작의 동영상상을 보고 고전을 미리 읽은 다음에 수강한다. 다만, 필자는 학생들이 고전을 읽고 오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서 수업을 진행하였고, 에세이 제출과 쪽지 시험, 발표와 토론 등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하였다.¹¹⁾ 덧붙여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설계에 보이

10)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 〈세계명작세미나〉』의 제Ⅲ부, 3. 명작세미나의 사상적 토대,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 기초교양 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4.12.4 참조.

11)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 〈세계명작세미나〉』 제Ⅲ부, 4-5 상세교수법,

는 강좌 목표를 변경한 강의 목표는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2015년도의 경우는 “첫째는 명작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사고할 수 있다. 둘째는 명작에서 현대적 문제의식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다.”¹²⁾로 정해졌다.

수업의 교재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 명작의 순서는 ①-⑤의 주제 설계와 달리 공통의 기반으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명작을 앞세우고, 난이도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역사와 철학을 대비하여 교차시켰다. 결국 명작의 수업 순서는 『명심보감』⇒『향연』⇒『사기』⇒『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역사란 무엇인가』로 결정되었다. 수업 내용에서 『명심보감』 『향연』 『역사란 무엇인가』는 완독하는 것이고,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는 「율긴이의 해제」가 포함되었다. 방대한 130편으로 완독이 불가능한 『사기』는 역사의 개념과 고금의 회통론에 기반한 발췌독의 논리와 ‘진의 통일운동과 반진운동 및 그 주변’, ‘항우와 유방의 쟁패’, ‘열전의 시종: 정신과 물질의 조화’라는 주제를 결합하여 모두 11편을 발췌하였다. 이는 「상군열전」, 「여불위열전」, 「인상여열전」, 「위공자열전」, 「자객열전」(예양과 형가만 포함), 「항우본기」, 「소상국세가」, 「유후세가」, 「회음후열전」, 「백이열전」, 「화식열전」이다. 보조 명작은 실제 수업에 이용할 겨를이 없었던 점도 덧붙인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수업은 해당 명작의 동영상 시청과 명작의 독해를 전제하고, 주요 명작마다 4회에 걸친 발표와 토론, 1회 명작의 종합토론과 보충강의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는 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왜냐하면 수강생의 능동성 한계와 기초 학력의 부족이나 과도한 부담, 학점 대비 수강 효율성의 저하 등 때문이었다. 필자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명작을 독해하지 못한 상태로 전제하고, 우선 발표조의 발표팀이 명작의 내용 6쪽 정리와 PPT 30매 가량으로 발표하고(0.5주) 발제와 토론(1.5주), 맞장토론(0.5주)로 편성하였다. 그 결과 명작의 종합토론은 발표조 발표팀이 명작의 내용을 PPT로 발표하는 것으로 대체되었고, 필자는 학생의 내용 발표를 보충하여

위의 책 참조.

12) 이원석,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계획서」, 2015년 1학기 참조.

설명하되 수업 시간마다 이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4회의 발표토론 가운데 마지막 1회는 맞장토론의 배틀이었다. 이에 따라 세미나 수업은 동영상 시청과 학생의 명작 독해⇒조별 발표조의 내용요약 발표(인쇄물과 PPT)⇒교수의 보완 설명(이상 0.5주, 명작의 내용강의는 이후에도 이어짐)⇒토론조의 토론주제 발굴과 확정 고지⇒4개 주제의 토론(3개는 발제토론으로 1.5주, 1개는 맞장토론)⇒발표조의 소감발표와 저자와의 대화(0.5주)⇒그 다음 시간에 미니퀴즈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조편성은 40명을 대상으로 4명씩 10개조로 편성하는 설계도 비현실적이었다. 수강의 정정이나 중도 포기자의 출현 등으로 40명의 수강정원은 유지하기 어려웠고, 많은 명작을 독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나 발표토론의 담당도 이상적이거나 너무 복잡하여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필자는 5-8명 내외로 그룹을 지어 5개의 대형조를 편성하고, 각조는 다시 3,4명 정도로 발표팀과 토론팀으로 분할하였다. 각조의 발표팀은 내용 발표와 맞장토론의 발제를 PPT로 발표하거나 3명 정도의 맞장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조는 3개의 정해진 주제를 대상으로 3편의 발제문을 작성하여 토론하는 것이었다. 발표팀과 토론팀에는 조장이나 부조장을 두어 교수와 소통하며 주제를 논의하거나 발표요약문과 발제문·논평문을 주고받거나 발표와 토론에서 사회자로 질문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그 대가로 조장에게는 2점, 부조장에게는 1점의 보너스 제공한다. 물론 1-5조는 하나의 명작을 선택하여 발표, 질문, 토론을 담당하고, 일반 학생들은 토론과 질문에 참가하였다. 조별 명단과 발표 명작의 서명은 첫째 주에 결정하였지만, 제1조는 준비 기일을 확보하기 위해 1주의 첫 시간에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조의 편성과 관련하여 발표하려는 명작이 중복 희망될 경우에는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였다.

명작의 내용 발표는 각조의 발표팀에서 담당한다. 발표팀은 명작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의 상의나 지시를 받아 A4 6장 이내로 요약한 다음 복사하여 배부한다. 발표요지는 정확한 문장보다는 내용과 정보의 전달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부호를 이용하여 간결하게 압축하여 정리한다. 그 자료는 발표 담당 각조가 각출하여 복사한 다음 배부한다. 다만, 실제 발표는 발표요

지를 압축하여 PPT를 30컷 이내로 만들어 40분 이내에 발표한다. 여기서 발표요지와 PPT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교수는 3회 정도의 침착을 통해 피드백하고, 발표가 끝나면 보충하여 설명한다.

발표 토론을 위주로 하는 세미나 수업은 다음과 같다. 각조의 토론팀은 정해진 명작을 독해하여 7,8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보고한다. 교수는 보내온 토론주제를 재정리하고 검토하여 두 차례 정도로 피드백하면, 토론팀은 최종적으로 4개의 주제를 결정한다. 그 가운데에 3개의 주제는 발제토론용, 1개의 주제는 맞장토론용이다. 주제는 가능하면 명제형을 피하고 대립되거나 다른 개념으로 구성하고 불가피하면 찬반의 형태로 정한다.¹³⁾ 정해진 토론 주제는 발표 전후에 적어도 1주일 전에 미리 고지된다. 발표조의 토론팀은 1,2명이 정해진 주제에 따라 그 선정 이유를 포함한 머리말과 맺음말 이외에 2~3개의 목차로 구성하되 A4 4쪽 이내로 발제문을 작성한다.

발표조의 토론팀에 대응하는 것은 논평조의 발표팀으로 1조에 4조가, 2조에 5조가, 3조에 1조가, 4조에 2조가, 5조에 3조가 대응한다. 논평조 발표팀의 지정 논평자는 1. 발제문의 중요내용과 소감, 2. 발제문에 대한 비판과 질문, 3. 자신의 입장에 대한 논거 정리, 4. 맺음말로 구성하여 A4 3쪽 이내로 작성한다. 이는 논평문에 발제문의 성격을 가미한 것으로 다른 명작세미나에서 발제문을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틀이다. 시간은 발제문의 발표와 약정 토론문의 논평, 그 이후 질문에 대한 토론조의 답변과 논평조의 재반박을 포함하여 대략 40분 정도 소요된다. 나머지 35분 정도는 일반 학생의 질문과 발표자와 논평자의 답변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미진한 답변의 보충, 강조 내용, 소감 등을 포함한 정리발언이 있다. 발표와 논평에 참가하지 않는 일반 학생은 3회까지, 발표토론조나 논평조도 2회까지 개별적으로나 토론상대팀에게 질문할 수 있다. 그 회수는 평가의 자료가 된다.

75분으로 구성된 실제 발표토론의 세미나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3) 이러한 형식으로 결정된 토론주제의 사례(2014년)는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다르마 교양교육의 평가와 새로운 전략」, 2021.9.3, 43-44쪽 참조.

우선 토론팀의 조장이나 부조장은 사회자가 되어 이클래스의 발제문과 논평문을 제시한다. 이후 발표자의 발제문 발표⇒지정논평자의 논평문 발표⇒논평문의 3가지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답변⇒답변에 대한 지정논평자의 재반박⇒일반 학생의 질문⇒사회자인 조장·부조장의 발언권 부여⇒질문자의 질문⇒발제자·논평자의 답변⇒교수의 보충설명, 평가⇒발제논평자의 정리발언이다. 만일 토론이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면 교수가 차단하고, 질문의 함량이 불량하거나 중복되면 회수에서 제외한다.

맞장토론의 경우, 발표조의 발표팀은 이클래스에 올라온 발제 이유, 명작과의 관련성, 찬반 논거, 결론 등을 담은 6컷 내외의 PPT를 10분 정도 발표한다. 이어 발표조의 발표팀과 논평조의 논평팀은 찬반 주제로 2,3명 정도로 토론 배틀을 진행한다. 시간은 전반부 25분, 후반부 15분 정도이다. 그 가운데 20분 정도는 일반 학생의 질문과 발표토론조의 답변이 있고, 최종적으로 양팀은 핵심 주장을 정리하며 학우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5회차의 수업이 모두 끝나면, 발표조는 저간의 소감, 저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발표하게 한다. 이상에서 조별 발표는 내용발표와 맞장토론이 2회, 발제토론이 3회이고 여기에 대응하여 조별 논평도 지정토론 3회와 맞장토론 1회가 된다. 이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설계에 부합된다. 아울러 예비시간에는 1~2회에 걸쳐 자유발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되었다.

평가의 설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다. 유드림스의 강의계획서에는 1,000점의 총점이 입력되지 않았고, 조별 발표와 논평이 총점의 과반을 차지하였다. 특히 발제문, 논평문, 에세이처럼 글쓰기와 관련된 점수가 70%를 차지하였지만, 에세이는 4회의 빈도나 중요성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명작에 대한 독해를 평가할 수 있는 미니퀴즈나 질문 등의 발언력에 대한 점수도 낮았다. 아울러 한 명작을 수업하기 전에 시험하는 미니퀴즈는 학생들의 준비 미흡으로 점수가 높지 않았다.

이에 평가는 조별 발표와 발제토론 25, 약정 논평 10, 에세이 35, 미니퀴즈 20, 개인별 토론 10으로 조정되었다. 중간고사는 없다. 출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3회 결석부터 1점 감점하되, 10회 이상은 과락으로 처리하였다.

지각은 정도에 따라 결석으로 비정하였고, 발표나 논평자가 결석할 경우 3점을 감하였다. 우선, 조별 발표와 토론은 발표조와 논평조를 제외한 학생들이 토론평가지를 이용하여 평가한 다음 5개 조에 차등적으로 부여하되, 동일한 조원들에게는 같은 점수를 제공하였다.¹⁴⁾

4회 제출하는 에세이의 설계는 <고전세미나>에서 비롯된 것으로 매우 과중하였다. 이에 필자는 형식적으로는 4회를 맞추었지만, 실제로 2회를 시행하였다. 1차는 『명심보감』, 『향연』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3차는 『사기』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임의로 하나의 명작을 선택하지만, 다독을 위해 자신이 속한 조의 발표 명작은 배제되었다. 다만, 2차는 1차의 수정과 보완으로, 4차는 주제 논문의 기말필기시험으로 대처하였다. 에세이는 모두 독후감으로 저자의 문제의식, 접근방법과 결론, 한계와 비판, 저자와의 대화, 주제 관련 소감, 현재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자신의 전공과의 관련성이라는 7가지의 항목을 구성하여 4쪽을 제출한다. 결국 한 달에 하나의 독후감은 각각 10점씩, 기말의 주제 논술은 5점이었다. 에세이는 모두 별도의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여기에 점수와 함께 첨삭하고 논평하여 돌려주었다. 에세이의 평가는 독창적인 견해, 정제된 기술, 정연한 논지의 전개, 고전의 정독 여부와 고민의 흔적 등으로 채점하였다. 지연 제출은 날짜에 비례하여 감점하고, 표절방지시스템을 운영하여 표절은 대폭 감점하거나 과락으로 평가하였다.

수강생의 예습 정도를 미리 확인하는 미니퀴즈는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과 수업시간의 무관심이나 태만을 가져왔다. 이에 필자는 한 명작의 수업이 완전히 끝난 다음 시간 시작과 함께 미니퀴즈를 10문제, 20점으로 15분 정도로 치렀다. 문제는 사지선다형, OX형, 괄호식, 단답형, 약술형, 서술식이다. 출제는 수업한 고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명작의 배경지식을 일부 포함하였다. 문제의 수준은 고전의 정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난이도가 있었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10점 정도이고, 15점 정도는 최상급에 해당되었

14) 토론평가지 양식(2014)은 코로나 19 이전까지 준용되었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다르마 교양교육연구소, 『다르마 교양교육의 평가와 새로운 전략』, 2021.9.3, 44-45쪽 참조.

다. 필자는 문제를행을 만들어 강좌마다 차별화하여 출제하였고,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정답을 고지하였다. 학기말의 마지막 쪽지 시험에는 총평을 제시하게 하여 다음 학기 강의계획이나 수업운영에 참조하였다.¹⁵⁾

개인별 토론은 세미나 수업에서 질문한 횟수에 따라 10점을 제공하였다. 세미나가 한 달 정도 진행된 다음에도 질문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질문과 토론에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지만, 질문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다른 학생들의 견해를 열심히 들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 점수로 5점을 제공하였다. 그 밖에는 발제와 논평을 잘 한 경우나 에세이·발표·토론을 잘한 경우, 무결석 학생에게도 1-3점 가량의 보너스가 제공되었다. 전반적으로 수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획득된 점수는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자신의 학점을 예상할 수가 있었다. 성적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상대 평가하였다.¹⁶⁾

IV. 확립기(2014 후반-2017 전반): 표준화 지침과 ACE사업

1. <세계명작세미나>의 표준화 지침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세계명작세미나> 수업은 출발하였으나, <세계명작세미나> 수업이 통일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실 <세계명작세미나>는 과도한 수준과 이상적 내용으로 설계되었고, 교수들 사이에 수업 체제나 평가 방식이 각각 달랐으며, 에세이도 다양한 양식이었다.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습 요구, 주제적 예습의 강화, 발표토론식 수업의 부담, 과중한 에세이 등에 크게 반발하였다. 1학기 수업이 마무리될 무렵인 6월 9일자 제1552호 <동대신문>은 <세계명작세미나>

15) 미니퀴즈의 시험은 이후로도 준용되었고, 코로나 19 이후에는 2021년 계절학기에도 시행되었다. 그 사례(2014년 2학기)는 동국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위의 책, 45-46쪽 참조.

16) 이상, <존재와역사 세계명작세미나>의 실제 수업은 다르마칼리지가 2014년 7월 21-29일까지 시행한「<세계명작세미나> 교과목 개선을 위한 강좌 운영 실태 조사표」에 따라 필자가 보고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여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 이는 기사 제목이 “『명작세미나 한 번도 힘든데 앞으로가 더 막막』”이 보여주듯이 <명작세미나>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강화된 고전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제기하고 수업 운영방식에 대하여 찬반이 엇갈렸지만 교수마다 들쭉날쭉한 수업방식에 대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¹⁷⁾

이에 대해 다르마칼리지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해소에 집중하였다. 이는 2014년 7,8월에 걸쳐 <세계명작세미나>의 강좌 운영의 표준화 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과정은 <세계명작세미나> 전체강좌 세부운영현황 조사⇒<세계명작세미나> PD교수 및 담당 교원 회의⇒<세계명작세미나> 강좌운영 표준화 지침 마련 및 안내⇒강좌 운영 표준화 지침 강의계획서 및 강좌운영매뉴얼 반영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세계명작세미나> 표준화 지침은 2014년 8월 20일 다르마칼리지 전체교원 회의에서 발표되었고, 2학기 강의계획서에 반영되었다.

우선 <세계명작세미나>의 표준화는 기존의 골격을 유지하였다. 이는 주요 명작 5권의 통독과 명작 당 2.5주의 수업, 팀프로젝트의 원칙 재천명과 10개 팀의 구성, 조별 발표와 논평은 4회, 20개 주제의 세미나 20회에 반영되었다. 다만 그 팀의 구성원은 3,4명으로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되거나 약간 변경된 부분도 있다. 세미나의 1회 수업 시간은 발표 20분, 지정토론 10분, 전체 개인 토론 20분, 총평 25분으로 정해졌다. 발표문과 토론문은 최소 3쪽과 2쪽이다. 평가 요소는 전체를 100%로 축소하여 출석 10%, 퀴즈/리뷰 10%, 발표 25%, 지정토론 10%, 개인토론 5%, 에세이 40%(기획서 5%, 초고 10%, 최종 25%)로 조정되었다. 크게 변경된 내용은 거의 시행이 불가능한 4회의 에세이 제출이 1회로, 계획서, 초고[중간본], 최종본으로 확정되었으며 점수도 크게 높아졌다. 에세이는 학술 소논문으로 규정되었고, 양식도 통일되었다.

여기에서 교수의 관여나 역할은 제고되었다. 교수는 주요 명작의 내용을

17) “『명작세미나 한 번도 힘든데 앞으로가 더 막막』”, <동대신문>, 2014.6.9, 1면.

75분 강의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명작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명작의 종합토론과 교수의 보충강의를 대치한 것이었다. 각종 피드백은 강조되었다. 발표 토론의 총평과 퀴즈/리뷰의 논평은 에세이 계획서와 초고에 대해 피드백하되, 수업 시간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최종 에세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드백해야 했다. 발표 토론의 평가는 토론평가지를 활용한 교차평가가 권유되었고, 이클래스의 사용과 학생 개별 지도가 권장되었다. 그 밖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금지되었고, 영상물과 같은 도서 이외의 보조교재는 최대 1회(75분)로 제한되었다. 위의 표준화 지침은 2015년에 「<세계명작 세미나> 강좌운영 기준」으로 수정되었지만, 내용은 그대로 재확인되었다(다르마칼리지, 2014, 5-10).

<표 1> <세계명작세미나> 표준화 지침(2014.8.20.)

구분		표준화 내용
필독도서 및 세미나 대상 도서	5권 도서명	필독서 5권은 반드시 그 각각의 내용 전체를 통독시킴
	수업시간	1권당 2.5주(75분 수업 5회)를 기준으로 하되, 도서 특성에 따라 담당교원 자율로 조정 가능
보조도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 방법 권유(담당교원 자율) - 필독서와 연계하여 간략 소개(수업시 일부 강의) - 발표 및 토론시 활용 유도 - 에세이 작성시 활용 권장 등
1권당 세미나 운영방법 (1권 단위 수업시간 중)	수업주간	1권당 2.5주(75분 수업 5회)를 기준으로 하되, 도서 특성에 따라 담당교원 자율로 조정 가능
	발표/토론 팀인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팀 단위 구성 발표 및 토론은 필수로 운영(팀프로젝트) 2. 팀 구성 인원은 4명을 기준으로 하되,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담당교원 자율로 조정 가능 ※ 학기중 총발표 횟수는 20회, 팀 구성인원은 수강인원을 고려하여 결정(총 10팀) * 아래의 사례 참조.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권당 발표횟수 4회시 1개 학기 총 발표횟수 20회 2. 수강인원 40명 - 팀구성인원 4명, 팀수 10개, 3. 1개 학기중 팀별 발표 횟수 2회.(지정토론팀 동일)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권당 발표횟수 4회시 1개 학기 총 발표횟수 20회

		2. 수강인원 30명 - 팀구성인원 3명, 팀수 10개, 3. 1개 학기중 팀별 발표 횟수 2회.(지정토론팀 동일)
	발표/토론 횟수/시간	1. 횟수 : 1권당 발표(토론 포함) 4회(1개학기 총20회)를 기준으로 시행 2. 시간 : 세미나 1회당 발표 20분, 지정토론 10분, 전체(개인)토론 20분, 총평 25분(세미나 총시간 75분) - 위 배분 시간을 기준으로 담당교원 자율 조정 가능
	발표문/토 론문 분량	발표문은 최소 3 페이지, 토론문은 최소 2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함
	1학기 학생 1인당 참여 횟수	1권당 발표(토론)횟수 : 팀 단위 각 2회 참여
	담당교수 관여사항	1권당 필독서 강의/1권당 발표(토론) 총평 퀴즈 시행 또는 학생리뷰(1×2P)에 대한 논평 ※ 학생리뷰(또는 쪽지글) 운영시 수업 중 시간 배정하여 학생 낭 독 및 간략 평가 등 권유 3. 학생 제출 에세이 계획, 초안에 대한 평가 및 지도 4. 기타 담당교원 시간 배정 및 운영 위 기준은 표준화를 위한 모형이므로 담당교원이 시간을 조정하여 자율 적용
성적평가	성적평가 반영요소	1. 출석 : 10% 2. 퀴즈(또는 학생 리뷰) : 10% 3. 발표 및 토론 : 40%(발표 25%, 지정토론 10%, 개인토론 5%) 4. 에세이 : 40%(계획안 5%, 초고 10%, 최종 25%) -계획안은 계획서 및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
성적평가	중간/기말 고사	중간 및 기말고사 시행 불가
	1팀내 발표토론 상호평가	팀단위 리더 평가 또는 팀내 교차평가(평가지 활용) 권유
에세이 작성 과제 ※발표 및 토론문 작성은 제외	에세이 총 제출 횟수	1회(계획서 제출→ 초고 제출→ 최종 문서 제출)
	1회당 분량	1. A4 7P 2. 양식규격 : 글씨크기 11, 줄간격 160, 왼쪽 및 오른쪽 여백 30, 위 쪽 및 아래쪽 여백 20, 머리말 및 꼬리말 15
	에세이 주제	담당교원 자율로 결정
	피드백	1. 에세이 : 계획서 및 초고에 대한 수업중 피드백 가능 - 수업외 시간을 이용한 첨삭이나 논평 등 피드백 가능

		최종 에세이에 대해서는 피드백 필수 2. 퀴즈 및 리뷰글: 수업 중 또는 수업 외 피드백 자율 결정
도서의 보조교재 사용		영상물과 같은 도서 이외의 보조교재는 최대 1회(75분 수업)로 사용 제한
수업의 학생지도 및 상담		1. 담당교원 자율로 시행 2. 정보문화관 3층(학사운영실 옆) 창의혁신소통센터 내 회의실을 면담 장소로 사용 권장
E클래스 활용 여부 및 활용 범위		E클래스 적극 활용 권장
교과목별 회의시간		학기 개시 전 1회, 학기 중 3회, 학기 종료 후 1회 이상 실시
해당 교과목에서만 운영하는 독창적 수업운영 방법으로서 다교과목에서도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수업운영방법		5개 교과목 모두 수업 관련 외부 인사 초청하여 특강 1회 실시(확정) 교과목 PD교수 및 담당교수 협의 요망

필자는 실제 수업에서 주요명작의 운영, 교수의 피드백 등 기본 골격을 강좌의 표준화 지침에 따랐고, 에세이의 변경에 따라 기말논술고사도 배제하였다. 소논문의 에세이는 주제와 목차, 머리말과 중요내용을 A4 1매의 계획서로 6주에, A4 4매의 정도의 중간본은 10주에 7매의 최종본은 13주에 제출한다. 다만, 수업의 운영방식은 내용발표와 맞장토론을 포함한 2.5주의 체제, 대규모 조편성, 발표토론과 그 횟수, 4쪽과 3쪽의 발표문·논평문의 분량 등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평가요소는 미니퀴즈를 20%, 개인별 토론을 10%로 제고하였고, 에세이를 35%(기획안 5, 중간본 10, 최종본 20)로 낮추고, 출석은 감점제로 전환하여 삭제하는 동시에 무결석자 등에게 주는 보너스는 전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평가요소에는 명작의 3요소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글쓰기의 축소와 명작 독해의 제고가 반영되었다.¹⁸⁾ 보조명작은 에세이 작성에서의 권유를 제외하고 이용되지 않았다. 표준화 지침과 다른 점은 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다르마칼리지의 <세계명작세미나> 표준화 지침은 몇 가지 점에서 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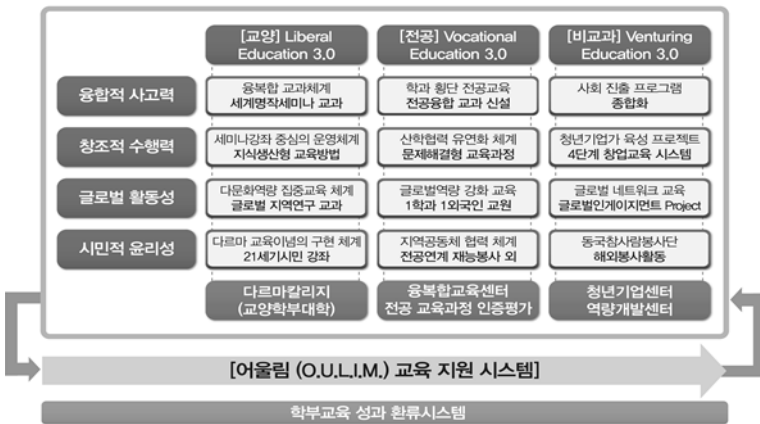
18)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 <세계명작세미나>」의 제Ⅲ부, 9-1. 평가총론,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 기초교양 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4.12.4 참조.

않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는 본교 <세계명작세미나>의 기틀을 확립한 점이다. 이는 2014년 2월에 배포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운영메뉴얼』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강의계획서」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현재까지도 준용되는 기본 골격이다. 둘째는 명확한 세부 규정이 제시된 점이다. 이는 수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요 명작, 발표와 토론을 비롯한 수업 방식, 에세이 작성, 평가 요소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 셋째는 실제 수업에서 실현 가능성이 제고되었다. 사실 <세계명작세미나>는 ACE사업을 위하여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설계되었고,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어졌다. 그 표준화 지침은 수업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넷째는 표준화를 통하여 통일성을 갖추면서도 수업의 자율성을 일정 정도로 담보한 점이다. 첨부된 「<세계명작세미나> 표준화 지침」을 정독하면, 5개의 분야나 주요 명작의 특성에 따라, 혹은 교수자의 “자율에 따른다.”는 언급이 반복되었다. 이는 거시적 차원에서 <세계명작세미나>의 통일성을 추구하면서도 분야, 명작, 교수 등의 분야에 자율성을 일정 정도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보조 명작의 권장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규정이다. 보조 명작의 활용은 본교 입시나 홍보와 관련하여 교양도서 100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권장되었다. 그러나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는 보조 명작을 소화할 겨를이 없었다. 차후에 이 부분은 사실상 사장되었고, 필자처럼 겨우 에세이 작성에 활용될 여지만 남았다. 둘째로, 일정한 자율성의 보장은 긍정적 측면과 함께 <세계명작세미나>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교수나 수업의 조건, 강좌의 평가와 관련되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율성이 확대되면 통일성은 다시 문제가 될 것이었다. 셋째로 평가 요소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하였다. 명작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독해·발표·작문의 삼위일체로 완성된다. 물론 그 가운데 글쓰기의 중요성은 일정 정도로 인정되지만, 평가가 글쓰기에 치중된 점은 문제이다. 공통 교양에는 별도로 <글쓰기> 강좌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지만 교수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덧붙인다.

2. <세계명작세미나>와 ACE사업

2014년 2학기부터 위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세계명작세미나>는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운영되었다. 물론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고, 폐강률도 일정 정도로 유지되었지만, <세계명작세미나>는 대체로 정상궤도에 진입하였다. 이는 2015년 7월 6일 본교가 수도권외곽지역에서 교육부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즉 ‘ACE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귀결되었다. 본 사업은 실제로 5월부터 소급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부의 해당 보도자료는 사업에 선정된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특징을 거론하였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서의 질적 수준이 상향평준화되었고, 전공에 비해 홀시되었던 교양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이 신설되었으며, 기초교양강좌 운영을 비롯한 교양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었고, 인성·사회봉사·진로와 취업지도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제공이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본교의 경우, 총장 직속 교양교육 허브 기관 ‘다르마칼리지’ 기능 강화와 함께 아래의 그림이 제시되었다.¹⁹⁾



〈그림 1〉 동국대 ACE사업 선정 어울림 교육시스템

19) 교육부 보도자료, 「잘 가르치는 대학, '2015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ACE)' 선정 결과 발표」, 2015.7.6; 「2015년 ACE사업 신규 10·재진입 6개대 선정」, <교수신문>, 2015.7.6. 다만 아래 그림의 제목은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그림 1〉은 융합적 사고력·창조적 수행력·글로벌 활동성·시민적 윤리성의 교육을 교양의 다르마칼리지, 전공의 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의 청년 기업센터와 역량개발센터를 통합한 어울림교육체제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르마칼리지의 신교양체제 3.0이다. 융합적 사고력과 창조적 수행력의 핵심인 〈세계명작세미나〉는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활동성과 〈지역연구〉, 시민적 윤리성과 〈21세기 시민강좌〉는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신교양체제의 재편이 본교의 ACE사업 선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즉, 다르마칼리지의 출범과 〈세계명작세미나〉는 교육부의 ACE사업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본교의 ACE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조치가 있었다. 그것은 다르마칼리지가 2015년 3월 1일자로 강의초빙교수 일부를 비정년 트랙의 조교수로 임명한 것이다. 〈글쓰기〉 영역의 4명과 함께 〈세계명작세미나〉는 5개 영역에서 2명씩 모두 10명이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이는 2014년 11월-2015년 2월까지 임용 공고와 심사를 거친 결과였다. 동시에 조교수의 연봉도 약간 제고되었다. 이는 역시 ACE사업의 선정을 위한 선제조치였다. 이후 ACE사업은 교양교육 교원의 역량강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강의메뉴얼 개정, 고전 명작의 도서 구입과 보조 명작의 동영상 제작, 에세이 경연대회와 우수작 책자 제작, 영역별 교양 특강의 지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²⁰⁾ 이는 〈세계명작세미나〉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V. 변모기(2017 후반-2021.9 현재): 하향 축소와 ‘코로나 19’

1.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변모와 축소

순항할 것으로 예상되던 〈세계명작세미나〉는 ACE사업이 후반부로 접어

20)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5.8.27, 4-5쪽. 다만, 보조 명작의 동영상 제작과 후자의 세 항목은 2014년 사업의 연장이었다.

든 2017년 2학기부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팀별 발표 토론은 각각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고, 여기서 남은 시간은 명작의 심화 강의나 에세이 발표와 피드백으로 활용되었다. 자연히 강의 구성도 변화되었다. 원래 교수의 강의 20%와 학생의 발표와 토론 80%는 교수 강의가 40%, 발표 토론이 60%로 조정되었다. 또한, 에세이의 분량이 7쪽에서 5쪽으로 줄었다. 덧붙여 팀프로젝트 무임승차의 방지를 위해 팀원 상호평가를 권장하되, 성적 반영은 교수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었다. 그밖에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필독서의 순차적 운영이 권고되었다.²¹⁾ 그 배경은 학생이 열심히 명작을 읽고 이해한 다음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는데 비해 교수자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 명작의 올바른 이해가 어려우므로 교수의 강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에서 영역의 수강생 상호 평가를 제외하면, <세계명작세미나>의 수준과 내용은 기존보다 하향되었고, 특히 학생들의 수업 준비나 참여와 수준은 기존보다 낮아졌다.

2017년 11월 8일 다르마칼리지는 회의의 주제도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명작세미나> 담당 전체 교수회의를 전격적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세계명작세미나>의 학점 축소였다. 전체 교수들은 ACE사업의 추진과 함께 <세계명작세미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 해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본 다음에 취득 학점을 낮추자고 주장한 반면에 다르마칼리지는 학생들의 불만과 <세계명작세미나>의 폐강률을 근거로 축소를 견지하였다. 심지어 학장은 교수들이 의견을 통일하면 이에 따르겠다고 발언하였지만, 이미 결론은 학교 당국에 의해 내려진 것이었다. 형식적인 그 회의를 거쳐 마침내 2018년 1학기부터 학교 당국과 다르마칼리지는 <세계명작세미나>의 5개 영역에서 3개 분야, 9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 대가는 명목적으로 <세계명작세미나>의 12학점 초과 이수와 공대생의 이수 제한을 폐지하는 선에 그쳤다.²²⁾ 후일에 확인된 가장 큰 이유는 본교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에 선정되면서 학기당 2학점, 총 4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21)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전체 교강사 워크숍』, 2017.8.22, 10쪽.

22)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전체 교강사 워크숍』, 2018.2.7, 8쪽.

었다. 그러나 이는 ACE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나온 점과 함께 본교의 교양교육에서 차지하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 후반기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성격이나 위치가 중요되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ACE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명작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세계명작세미나>의 축소 흐름은 보다 확대되었다. 다르마칼리지는 2018년 5-8월까지 ‘<세계명작세미나> 지정도서 및 운영방법 개편 연구’를 진행하였고 9월에 그 결과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확정하였다. 그 내용은 <세계명작세미나>에서 5권으로 구성된 주요 명작을 ‘지정 필독서’로 정하여 4권으로 줄이고 강좌운영기준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기존의 주제를 다시 정비하는 동시에 주요 명작 『명심보감』을 제외하고, ‘선택 필독서’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제는 ‘역사의 이해’, ‘삶과 사랑’, ‘역사와 인간’, ‘이상과 현실’로 개편되었다. 새로운 주제에 대응한 주요 명작은 ① 『역사란 무엇인가』, ② 『향연』, ③ 『사기』, ④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보는 보편사의 이념』이었다. 여기서 ①과 ④는 지정[공통] 필독서로, ③은 선택 필독서로 결정하고, ②는 우선 공통 필독서로 정하여 같은 범주에서 명작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 2년 뒤에 ③과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밖에 기존 보조도서 『춘추좌씨전』과 『진심직설』은 방대한 분량과 불교 도서를 이유로 삭제하고, 홍대용의 실학과 천하관, 자연과학과 천문학, 철학과 역사를 아우른 『의산문답』을 새로 편입하였다. 구성의 한계와 내용의 시의성이 부족한 『명심보감』은 선택 필독서로 이동하였다.²³⁾ 참고로 필자는 지정 필독서로만 수업하였다. 개편된 필독서는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의 《제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의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세계명작세미나>의 강좌 운영 기준도 일부 변경되었다. 우선 평가 요소의 반영 비율은 출석 10%, 퀴즈/리뷰 20%, 발표토론 30%, 에세이 30%, 자율

23) 이상은 다르마칼리지, 「2019학년도 세계명작세미나 지정도서 및 운영방법 개편 시행 안내」, 2018.10.5. 참조.

항목 10%로 조정되었다. 퀴즈/리뷰가 제고된 반면 발표토론과 에세이는 줄어들었다. 자율항목은 교원이 수업참여도, 명작 체험, 팀원 상호 평가 등에서 자율로 지정한다. 이는 기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하면 퀴즈나 리뷰, 자율항목의 평가 비율이 제고된 반면에 발표토론과 에세이는 모두 낮아졌다. 두드러진 변화는 교과목의 운영에도 나타났다. 명작 당 수업은 3주, 75분 6회로, 1주의 교수 강의와 2-3주의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결정되었다. 팀 구성도 5명 8팀으로 축소되었고, 팀별 발표와 토론의 횟수도 각각 1회로 줄었다. 강의 구성 요소로 교수자의 강의 40%와 학생들의 발표 토론 60%가 재확인되었다. 동시에 <세계명작세미나> 주별강의계획서도 15주로 재편되었다. 에세이의 제출도 계획/초고와 최종본의 2단계로 축소되었다.²⁴⁾ 이상은 명작의 난이도를 하향조정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측면과 함께 2019학년도부터 본교가 학기당 16주의 수업을 15주로 축소하는 준비를 겸한 것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모두 2019년 1학기부터 적용되었다.

이에 필자는, 2019학년도부터 학생들의 내용발표 대신에 1주일 동안 명작에 대한 소개와 내용을 강의하였고, 발표와 토론의 시간에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강의하였다.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발표조의 내용발표는 사라졌고, 평가도 새로 변경된 규정에 따랐다. 에세이는 6주에 초고[중간본, 10%], 13주에 최종본[20%]을 제출하도록 조정되었다. 다만, 발표와 토론의 경우 2주, 4회에 걸쳐 기존과 동일하게 4개의 주제를 대상으로 발제논평 3개의 주제와 맞장토론 1개의 주제로 진행하였다.²⁵⁾

2. ‘코로나 19’와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세계명작세미나>의 표준화 지침보다 약화되고 축소된, 2019년부터 개정 체제에 따라 진행되던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였다. 2020년 1월 하순부터 ‘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였던 것이다. ‘코

24) 다르마칼리지, 「2019학년도 세계명작세미나 지정도서 및 운영방법 개편 시행 안내」, 첨부 문건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주차별 교육안내 2018.10.5 참조.

25) 이원석, 2019년 1학기 강의계획서 참조.

로나 19'는 교육 현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본교의 1학기 개학은 3주나 지연되었고, 수업은 전면적인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시간도 60분의 경우 45분, 75분의 경우 50분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교수자나 학생도 경험하지 못한 수업방식이었다. 면대면 수업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운영된 <세계명작세미나>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였다. 필자가 말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에서 추진한 맛장토론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발표와 논평, 질의와 응답을 위주로 하는 세미나도 쉽게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쪽지시험도 공정성이라는 난제에 직면하였다. 여기에 코로나 19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강좌의 운영에 어려움을 배가시켰다.

이에 2019년 체제의 <세계명작세미나>를 따르면서도 수업의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우선 15주, 30회, 35(2학기에는 30, 2021-1은 35)명의 수강생이라는 수업 조건과 강의 40%와 발표와 토론 60%를 염두에 두고, 유드림스의 강의계획서를 수정하여 이클래스에 올렸고, 이마저도 다시 조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제운영은 계획과 달리, 1-6주는 교수의 명작 강의, 7-14주는 학생의 발표와 토론이었다.

이는 명작마다 강의 1주, 발표토론 2주로 정해진 강의계획서와 달리 먼저 명작의 강의를 묶어서 시행하는 수업이었다. 우선 명작의 강의는 첫 주의 오리엔테이션에서부터 6주 동안 진행되었다. 그 순서는 조별 편성과 발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기』(4조)⇒『향연』(3조)⇒『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1조)⇒『역사란 무엇인가』(2조)로 조정하였다. 『역사란 무엇인가』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의 순서를 바꾼 것은 1조의 발표가 바로 7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제의 선정과 명작의 이해, 그리고 발제문·논평문의 작성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명작의 소개와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수의 강의는 거의 65-70분이 소요되었고, 5.5주 동안 진행되어 겨우 6주에 끝이 났다. 지체된 이유로 면대면 수업에서 강의는 시간마다 조금씩 명작의 내용을 보충하여 강의할 수 있었지만 비대면 수업에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클래스에 녹음된 명작의 내용강의

는 명작의 독해와 발표에 이용되었다.

팀프로젝트도 준수되어야 했다. 1조의 감상문 발표가 7주인 점을 염두에 두고, 교수가 명작을 강의하는 도중에 조편성을 추진하였다. 1조-4조는 3주-6주에 걸쳐 편성하되 먼저 첫 발표조인 1조와 그 논평조인 4조부터 정하였다. 편성방법은 수업 도중 특정한 시간에 이클래스의 쪽지를 통해 지원자를 받은 다음 선착순으로 결정하였다. 8,9명을 포함하는 큰 단위의 1개조는 다시 감상작문팀과 발제작문팀으로 반분하였다. 감상작문팀 4,5명은 정해진 명작을 읽고 한 대목을 뽑아 감상, 의미부여, 재해석 등으로 작성하는 한편 2,3명이 2조로 나누어 논평조로서 발제문에 대해 논평문을 작성한다. 발제작문팀은 2개의 주제를 결정한 다음에 2,3명이 각각 하나의 발제문을 작성하여 발표하거나 4,5명이 비평문을 작성하였다. 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발표조와 토론조의 편성과 임무(2020년~, 코로나 19)²⁶⁾

발표조 1조(8,9명)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감상작문팀	감상문(1-4) 1대목 각각 A4 1쪽씩 4편 작성과 토론 (4,5명, 감상문 당 1명)
	발제작문팀	발제 주제 2개 결정, 주제 1,2의 발제문 각각 A4 4쪽씩 2편 작성 과 토론(발제문 당 2명)
논평조 (8,9명) 4조 『사기』	감상작문팀	주제 1,2에 대한 논평문 각각 A4 3쪽씩, 2편 작성과 토론(4,5명, 논평문 당 2,3명)
	발제작문팀	감상문에 1,2와 3,4에 대한 비평문 각각 A4 반쪽씩 모두 2쪽 4 편 작성과 토론(4명, 비평문 당 1명)

명작마다 2주, 모두 8주 동안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의 방식도 변경되었다. 확정된 4개의 주제 가운데 한 주제로 맞장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은 비대면 수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업의 강도나 수준은 다소 낮추고, 학생들의 부담은 줄여야 했다. 이에 명작마다 2주간 진행되는 발표와 토론은 기존의 발제문과 논평문을 1주일 동안 진행하고, 이에 앞서 감상문과

26) 2020년 2학기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RGC1010-12]>의 강의계획서는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앞의 책, 47-49쪽 참조.

비평문을 1주일 수업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감상문과 비평문은 명작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A4 1매와 0.5매로 4편씩이다. 감상문은 명작의 원문에서 한 문단을 발췌하고, 이어 발췌 이유로 한 문단, 그리고 인용문에 대한 감상, 의미부여, 재해석 등을 세 가지 논거로 정리한다. 논평조의 발제작문팀은 감상자와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인용문에 대한 감상이나 비평, 재해석과 의미를 부여한다. 감상문과 비평문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의 《제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의 부록 7,8에 제시되어 있다.

감상문과 비평문의 수업은 먼저 발표조의 감상작문팀이 2편의 감상문을 발표하고, 논평조의 발제작문팀이 2편의 비평문을 발표한다. 이어 논평조의 비평에 대해 발표조가 답변, 해명, 비판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논평조 다시 반박과 비판을 가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감상문과 비평문의 3,4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모두 1주일 수업이다. 그 다음에 발표조의 발제작문팀은 7,8개의 주제를 발굴한 다음 교수자의 검토와 피드백을 거쳐 2개의 주제를 결정한다. 그리고 2,3명으로 나누어 각각 하나의 주제에 대한 발제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논평조의 감상작문팀이 발표조의 발제문에 대해 논평문을 작성한다. 수업은 발표조의 발제작문팀이 이클래스에 탑재된 발제문을 내려 읽고, 논평조의 감상작문팀이 논평문을 내려 읽는다. 그러면 발표조는 논평문에 포함된 질문 3가지에 대해 답변이나 반박을 제시하고, 논평조는 그 답변이나 반박에 대해 다시 반론한다.

감상문과 비평문, 발제문과 논평문은 순서에 따라 발표자나 논평자만 마이크를 사용한다. 발표와 비평·논평과 답변과 재반박이 끝나면 일반 학생들은 채팅창에 질문의 대상과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올린다. 교수자는 감상문1과 비평문1, 감상문2와 비평문2의 순서에 따라, 혹은 발제문과 논평문 등의 차례로 발언권을 주어 질문하게 한다. 그 밖에 질문이 아니라 감상문과 다른 감상을 발표할 수도 있다. 물론 해당 질문을 받은 발표자와 논평자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일정한 준비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답변하고, 교수가 보완하기도 한다. 발표와 논평이 끝나면 정리 발언으로 매듭짓는다. 정리는 답변에 대해 미진한 부분, 강조할 내용, 소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발언한다. 이상이 0.5주, 75분간 진행되는 수업 방식이다. 이럴 경우 조별로 감상문과 발제문의 발표 각각 4회와 2회(각각 4.5명), 비평문과 논평문의 지정 토론이 4회와 2회(각각 4.5명)가 된다. 전체적으로는 팀별 발표 2회, 팀별 논평 2회, 조원 각자는 발표와 논평이 각각 1회가 되는 셈이다. 1·2·3·4의 발표조에는 4·1·2·3의 논평조가 차례로 대응한다. 에세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2회 제출한다.

평가 요소도 기존과 동일하다. 조별 발표와 토론이 20%·10%, 퀴즈 20%, 에세이 30%, 출석 10%, 수업태도와 질문은 10%로 모두 100%이다. 발표와 토론은 만점을 제공한 반면에 피드백하는 과정에 다소 큰 문제가 야기된 경우에는 별도로 감점하였다. 퀴즈는 볼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의 상황과 관련하여 변동을 주시하며 긍정성 문제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모두 만점을 제공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학점과 관련하여 면대면 수업에서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 밖에 보너스는 전면적으로 폐지하였다. 이는 무결석의 의미가 면대면 수업보다 빈약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 대체로 학점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는 에세이나 수업태도와 질문이고, 출결이 그 다음이다. 전반적으로 학점은 절대평가로 인해 다소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VI. 평가 및 과제와 혁신

1. 평가

필자가 2014년부터 진행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교수의 강의수업이 아니라 명작을 중심으로 독해·토론·작문을 통합한 자기주도형 수업 강좌이다. 물론 시기의 추이에 따라 교수의 강의가 40%로 제고되었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었다. 그 교육의 목표와 성과는 명작을 비판, 해체하고 다시 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협업에 기초한 의사소통능력

과 비판을 토대로 한 창의융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수업의 방식은 개인별 발표가 가미된 팀프로젝트로 발제문과 토론문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나 내용의 요약발표와 맞장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는 ‘코로나 19’가 유행한 2020년 1학기부터 ‘발제문·논평문’과 ‘감상문·비평문’으로 이분되었다. 후자는 명작의 이해와 재해석에, 전자는 한국사회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현재 모든 학생은 한 학기에 감상문이나 발제문, 비평문이나 논평문을 각각 1회씩 작성해야 한다. 발표와 토론을 통합한 분량은 A4 4.4.5매이다. 발표의 분량과 횟수는 다르마칼리지의 규정보다는 다소 높다.

1993년부터 중국사와 역사학을, 특히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고전과 명작을 강의한 필자의 평가로, 교양교육에서 고전과 명작을 매개로 발표와 토론 위주의 세미나 수업은 교육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지금까지 필자는 전공이나 일반교양으로 중국사나 동양사를 강의하였지만, 좁게 <고전세미나> 넓게 <세계명작세미나>보다 유용한 강좌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양극화, 정보산업사회의 급진전을 배경으로 수요자 중심의 주제적 수업, 가설의 제시와 문제해결 능력의 제고 등에 매우 유용하였다. 특히 본 강좌는 정확한 독해력과 합리적 사고력, 비판의식과 문제의식의 함양, 발표와 토론을 통한 소통의 중시, 창의와 융합을 통한 문제해결, 그 결과로서 글쓰기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좁게 인간의 사유와 행적을 고민하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이나 윤리론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미래 사회의 전망에 대한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객관적 평가 자료는 다르마칼리지에서 실시한 핵심역량과 학습성과에 대한 통계가 있다. 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2018년 1학기의 시범 평가를 제외하면 2018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6학기의 통계이다. 우선 핵심역량 교육성과 평가에서 본교의 6대 핵심역량 가운데 <세계명작세미나>와 관련된 것은 의사소통역량과 창의융합역량이다. 그리고 양자의 핵심 역량 아래 학습성과는 각각 5와 6, 11과 12이다. 그 구체적인 학습성과 지표는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기초학습능력, 토론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새롭게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는 능력, 학문간의 지식들을 연결 짓고 통합하여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이다.²⁷⁾ 아래에서 교수평가는 배제하고 학생평가를 중심으로 정리하지만, 간결한 비교를 위해 학습성과는 세분하지 않는다. 평가는 5.0이 만점으로 설계되어 있다. 2018년 2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공통교양 교육성과 평가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세계명작세미나>의 교육성과 평가결과²⁸⁾

구분	공통교양 핵심역량		세계명작 핵심역량		세계명작 학습성과		존재와역사 학습성과	
	의사 소통	창의 융합	의사 소통	창의 융합	의사 소통 5, 6	창의 융합 11,12	의사 소통 5, 6	창의 융합 11,12
2018-2	4.37	4.15	4.33	4.36	4.33	4.36	4.28	4.28
2019-1	4.44	4.25	4.35	4.37	4.35	4.37	4.35	4.39
2019-2	4.41	4.17	4.36	4.37	4.36	4.37	4.40	4.42
2020-1	4.45	4.20	4.37	4.41	4.37	4.41	4.47	4.46
2020-2	4.52	4.27	4.51	4.53	4.51	4.53	4.62	4.62
2021-1	4.50	4.42	4.60	4.58	4.59	4.58	4.62	4.59

이상의 평가 통계를 정리하면, <세계명작세미나>의 핵심역량평가에서

27)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7.8.22, 21-24쪽. 이는 2021년 1학기부터 5대 역량으로 조정되었다. 창의융합 역량은 그대로 존치되었고, 의사소통역량은 소통협력역량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창의융합역량과 소통협력역량의 학습성과가 1,2와 7,8로 조정되었다. 그 내용은 “사회 환경 변화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혁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융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상대방의 언어와 감정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 구성원들과의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팀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핵심역량 개편에 따른 교양 교육 성과 및 평가도구 개발』, 2020.12, 24-38쪽. 위의 표는 2021학년 1학기의 경우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다.

28) 이상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정 교육성과 평가결과』에서 정리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다르마칼리지의 고은선 선생에게 감사드린다.

의사소통[협력]능력은 점차 우상향으로 제고되었지만, 처음부터 5학기까지는 다르마칼리지 공통교양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1년 1학기에서야 그 평균을 넘어섰다. 이와 달리 창의융합능력은 <세계명작세미나>가 시종 일관하여 다르마칼리지 공통교양의 평균을 0.12-0.26 정도로 초월하였다. 다만, 핵심역량의 평가에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세부 영역으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습성과평가에서 <세계명작세미나>는 대체로 우상향으로 발전하였고,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2020년 2학기부터는 정체되거나 하락하여 엇갈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협력]능력의 학습성과는 2018년 2학기에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가 <세계명작세미나>보다 0.05가 낮은 상태로 출발하여 2019년 1학기에 동일하다가 이후로 그 평균을 0.03에서 0.11을 상회하였다. 창의융합의 학습성과도 비슷한 흐름이다. 이는 2018년 2학기에 이는 <세계명작세미나>의 평균보다 0.18정도 낮게 출발하였지만, 그 뒤로는 그 평균보다 0.01에서 0.12까지 높아졌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학습성과를 <세계명작세미나>와 비교하면, 창의융합성고가 [의사]소통[협력]성과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이었다. 이상의 흐름을 해석하면,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본교의 학습역량과 이에 따른 학습성과의 평가에서 모두 <세계명작세미나>의 평균보다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 과제와 혁신

여기서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19’를 염두에 두고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과제와 혁신을 논의한다. 전자는 좁은 범주에서 강좌의 한계나 문제점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후자는 넓은 범주에서 다르마칼리지가나 학교 당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자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후자는 전자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양자는 분리하여 서술될 것이지만, 혼용될 경우도 있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본교의 공통교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우선, 현재의 강의의 개요는 조정되어야 한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드림스의 강의계획서에 있는 강의개요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설계할 무렵의 마련된 강좌개요를 거의 그대로 이어져온 것이다. 그런데 그 강좌개요는 〈세계명작세미나〉의 다른 영역과 비교하면 다소 추상적이고 수사적이며 장문이다.²⁹⁾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한 내용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당시에 설계된 강좌 목표도 비슷한 경향성을 지녔지만, 현재의 강의목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바뀌어 있다.³⁰⁾

또한, 공통 필독서와 선택 필독서는 재정비될 여지가 있다. 현재 존재와역사는 『역사란 무엇인가』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칸트의 역사철학』)을 공통 필독서로, 『향연』과 『사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선택 필독서가 교체된다. 2022년 1학기까지 선택 필독서는 『향연』뿐이다. 이러한 필독서 체제가 정해진 것도 3년 반이 지났다. 그리고 공통 필독서는 학생들의 에세이 작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명작의 선택은 에세이의 주제를 다변화시키고 표절률의 하락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의 선택 필독서는 명목만 남아있고 실제의 수업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선택 필독서는 정해진 수업 시간에 활용되기 어렵고, 겨우 에세이에 참고하라는 안내에 그친다. 이마저도 학생의 선택에 맡길 뿐이다. 또한 공통 필독서 1권에 선택 필독서 5권으로 대응하여 각 영역을 24권으로 만든 것도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 〈세계명작세미나〉에서 제시하는 명작은 모두 120권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보조 필독서는 4권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세계명작세미나〉의 필독서는 모두 100권이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은 공통필독서와 관점이 다르고 에세이에 필요하며 학생들의 기초 학

29) 본교 Ⅲ장 시험기(2014 전반)의 (1)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설계 부분 참조.

30) 필자의 2021년 1학기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강의계획서에 나오는 강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강의명작을 스스로 독서하고 이해하여 주제를 발굴할 수 있다. 정해진 주제에 따라 발제문이나 논평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면서 토론할 수 있다.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견해를 융합하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력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는 다르마칼리지와 함께 입학처나 공보처와 논의할 사항이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이보다 더 축소하는 것도 무난하다.

여기에서 정보와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필독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미 5권의 필독명작체제에서 공통이나 선택의 필독서 가운데 정보산업혁명과 관련된 명작의 편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³¹⁾ 이제는 공통 필독서로 1권을 넣든지, 아니면 주제별 선택 필독서에 두 세권을 나누어 편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는 명작과 한국사회를 보다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자 미래 전망이라는 역사의 본령과도 밀접하다. 다만, 그 권수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많아야 모두 20권이다.

그리고 명작의 세미나 통일과 함께 독해·발표·작문의 균형과 배점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수업 방식은 명작을 중심으로 발제와 논평을 통한 세미나이다. 사실 명작의 이해와 세미나의 경중이나 선후의 문제는 일찍부터 논의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자 없이는 세미나가 불가능하고, 독해에 치중하면 후자에서 멀어진다. 실제 수업에서 전자는 현재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주제적 독서로 충당되고, 후자는 주제를 발굴하여 확정된 다음 발표문과 토론문을 토대로 한다. 물론 명작의 완벽한 이해가 쉽지 않고, 명작의 내용과 분리된 세미나도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작의 독해 이후 세미나가 이상적이지만 어느 한쪽에 치중하기보다 5:5나 4:6으로 결합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현재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문이다. 발제문·논평문·감상문·비평문은 모두 글쓰기이고, 발표와 토론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밖에 에세이도 있다. 독해와 발표는 반드시 작문과 직결되지만, 그 정도가 다소 지나치다. 이는 평가 요소에서 더욱 뚜렷하다. 기

31) 필자는 2017년 이전 5권 명작체제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이라는 주제 아래 공통과 선택의 필독서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다르마칼리지 교학팀,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방향 연구』, 2018.2, 111-118쪽.

본 요소로 10%의 출석을 제외하면, 글쓰기와 관련된 에세이와 발표토론이 60%이다. 독해와 관련된 미니퀴즈는 20%에 그친다. 미니퀴즈 대신에 리뷰로 평가할 경우에는 글쓰기가 80%에 이른다. 발표토론에도 말하기가 포함되지만 평가요소로 명기된 것은 자율항목 10%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기가 지니는 한계를 고민하면서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강인원은 팀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조정이 복잡하다. <세계명작세미나>는 학생들이 매우 싫어하는 팀프로젝트 수업이라는 전제 아래 수강생이 2020년 1학기에 40명, 2학기에 30명, 2021년 1학기에 35명, 2학기에 30명이었다. 자기주도형 수업으로 강좌당 40명은 분명히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강좌의 수강생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다만, 수강생이 30명일 경우에는 조편성과 운영 및 수업부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필자는 팀프로젝트 수업을 전제로 삼을 경우 <세계명작세미나>에 가장 합당한 수강생의 숫자를 35명으로 본다. 아울러 수강인원을 30명 미만으로 정할 경우, 팀프로젝트에서 개별수업으로의 전환도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바로 쪽지시험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발표와 토론을 위주로 한 활발한 세미나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도 한계에 봉착하였다. 사실 필자는 2021년 여름 계절학기를 제외하고 명작의 독해와 관련된 미니퀴즈를 치르지 않았다. 강의 도중에 4회 시행되는 10문제의 비대면 쪽지시험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도 2021 여름계절학기에서 미니퀴즈로 50분간 30문제를 시험하였지만 공정성을 의심한 사례도 존재하였다. 그 해결책은 미니퀴즈를 통합하여 학기말에 면대면 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비대면 시험의 경우는 학기말 고사로 정정하고 명작마다 20문제 정도로 확대 출제하여 총 80문제를 5,60분 정도에 치른다. 이는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회귀하는 것과 함께 다르마칼리지나 학교 당국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별강의계획서나 새로운 강의매뉴얼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르마칼리지는 2018년의 <세계명작세미나>의 학점 축소와 15주로의 개편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지만 강의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적이 없다. 물론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이전의 강의매뉴얼에 공통 필독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기존의 강좌 운용의 기준에 맞추어 조정하면 된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되거나 변경된 내용도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강의매뉴얼에 수정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덧붙여 강의매뉴얼은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하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다르마칼리지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수강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교육 시장의 증대 등과 함께 교육 정책에 보이는 교사의 인지교육의 저하, 학생 중심의 수업 등은 중등학생의 기초 학력을 떨어뜨렸다. 일반적으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학력은 2010년대 국가에서 진행하는 학업수준평가나 OECD의 PISA(수학)의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전국 일반 고교 1학년 국·영·수의 기초학력 저하자(60% 이하)는 27% 가량이었다.³²⁾ 게다가 ‘코로나 19’의 비대면 수업은 기초학력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19년 중학교 3.3%, 고등학교 3.6%였는데 2020년에 각각 7.1%, 8.6%로 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에 영·수가 각 13%로, 국어도 6%로 올랐다.³³⁾ 현재 ‘코로나 19’ 4단계에서도 교육부가 초중고의 면대면 교육을 강행하려는 것도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중등생의 학력저하는 그대로 대학의 교육현장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공계 열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 19’와 함께 진행되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의 비대면 수업에도 에세이 제출이나 수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최근에 수강생의 독해력·사고력·문장력의 하향을 절감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교수 1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32) 이광현,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사회보장연구』 28-1, 2021 참조.

33) 「코로나로 기초학력 역대 최악, 남학생이 더 심했다」, <중앙일보>, 2021.6.3.

수 없다. 다르마칼리지나 학교 당국은 명작의 독해와 글쓰기를 구조적 제도로 해결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세계명작세미나>에 대한 학생의 부담은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다. 말하기의 중요성과 결합하여 주제 가운데 하나를 면대면 수업에서 맞장토론이나 비대면 수업에서 자유토론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대안이다.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담당 교수의 막대한 부담도 축소되어야 한다. ‘코로나 19’의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의 강의는 기존의 면대면 강의보다 30% 정도 더 힘이 든다. 뿐만 아니라 교수는 학기마다 8주 동안 이루어지는 발표토론에는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 피드백을 진행한다. 예컨대 교수자가 4개의 강좌를 담당하여 1주에 2회, 2주제를 수업하고 주제마다 3회의 피드백을 가정한다면, 1주일에 발제문과 논평문은 모두 48회나 피드백을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많을 경우에는 주당 60회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감상문과 비평문은 분량이 적지만, 횟수는 이를 능가한다. 뿐만 아니라 에세이의 평가와 관련된 피드백도 2회나 있다. 학생의 숫자를 대략 35명으로 환산하면 140명, 3쪽의 중간본과 5쪽의 최종본을 검토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학기가 시작되면 교수는 사실상 연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1학년도 1학기에 필자는 처음으로 토요일은 피드백 불가를 선언하였다. 본교에서 가장 무거운 <세계명작세미나>의 강의부담은 경감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교수의 처우개선도 필수적이다. <세계명작세미나>의 담당교수는 일반적인 강의 수업보다 보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지만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악전고투하고 있다. 주당 4강좌 12학점을 강의하는 강의초빙교수는 2015년에 3,400만원에서 7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동일한 조건의 비정년 조교수는 2021년에 겨우 280만원 인상되어 4,080만원이다. 이마저도 언제 다시 인상될지 알 수조차 없다. 이는 박사학위취득이나 강의경력도 무용지물로 만든 결과 4년 대학졸업자의 초봉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인사권·행정권도 전무하였다. 2021년 1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2명의 비정년 교수가 PD에 임명되었고, 2학기에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밖의

처우는 정년트랙의 교수는 물론이고 교직원보다 나은 점도 거의 없다. 다르마칼리지의 비정년 교수가 실로 직원보다 못하다는 자조적인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좋은 강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사의 경우는 언급할 여지도 없다.

VII. 맺음말: 전망을 곁하여

이상에서 필자는 본교의 공통교양으로 좁게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 넓게 <세계명작세미나>의 출발과 정립, 변모와 축소, 평가 및 과제와 혁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포함한 <세계명작세미나>는 축소를 포함한 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정부·교육부와 사회·시장의 압력, 직접적으로 학교 당국과 다르마칼리지 및 교수와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실제의 수업 현장에서도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비롯하여 <세계명작세미나>가 보다 축소되는 양상은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장단기로 나누어 전망한 다음 핵심적 관건을 확인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실로 좁은 범주의 과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비롯한 <세계명작세미나>의 단기적 전망은 썩 희망적이지 않다. 변혁적인 디지털 사회로의 진전, 자본주의의 발전과 양극화 사회, 교육현장의 다양한 변화, ‘코로나 19’의 확산, 복잡한 본교 공통교양체제의 개선 등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를 비롯한 <세계명작세미나>는 지난 7년 반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폭의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세계명작세미나>는 ACE사업이 완료된 지도 2년이 지났고, 학교 당국의 관심이나 주목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자도 2017년 2학기 이래로 다르마칼리지가 학교 당국의 관심이나 주의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다. 사실 학교 당국의 입장은 2017년 2학기부터 시작된 <세계명작세미

나)의 축소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코로나 19’가 덮친 대학현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교양교육이 모아질지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명작세미나 수업도 크게 동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주류를 이룰 경우 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지난한 인류의 역사에서 현재보다 극심한 격동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 고전이나 명작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고전이나 명작은 인류가 발견하고 발전시켜온 지혜와 지식 가운데 세월의 마모를 견뎌 유효성이 입증된 정전(正典)이기 때문이다(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5, 4). 본교의 사례로 설명해도 2005년에 시작된 <고전의 이해>나 이듬해의 <고전세미나>는 현재의 <세계명작세미나>까지 17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명작세미나>는 단기적 동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세계명작세미나>의 변모 과정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은 학생의 여론을 빌미로 한 학교 당국의 방침이었고, 다르마칼리지의 강의교수와 비정년 교수는 그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실로 교수들에게 행정권과 인사권 등의 실권이 거의 없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다르마칼리지의 교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도 거의 배제되었다. 이는 교수의 사기와 자존심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의 질마저 하락시켰다. 그 결과는 <세계명작세미나>의 축소와 해체를 가속화할 것이 명백하다.

<세계명작세미나>의 축소와 해체를 벗어나는 길도 여기에서 먼저 찾는 것이 그 출발이다. 이제 다르마칼리지의 교수들은 그 대상에서 벗어나 초심으로 돌아가 강좌 운영의 핵심으로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혁신을 배가하는 주제로 변모해야 한다. 그 기본은 2018년 <세계명작세미나>의 틀이고, 핵심은 공통과 선택의 필독서의 준수,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팀플 위주의 발제와 논평, 평가 요소의 통일, 동영상이나 PPT의 배제 등이다. 여기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혁신을 배가하면 <존재와역사 명작세미나>는 물론이고 <세계명작세미나>도 좋은 강좌로 거듭날 것이다. 바꾸고 고치는 것만이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강좌를 원칙에 따

라 지켜가는 것도 개혁이자 혁신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다르마칼리지나 학교 당국의 문제점만 강조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강의평가를 명분으로 진행하는 편의적인 수업은 의심할 바 없이 <세계명작세미나>의 축소와 해체를 촉진할 것이다.

학교 당국이나 다르마칼리지도 우선 <세계명작세미나>에 대한 무관심이나 축소라는 방향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평가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관건으로 삼는 경영적 측면에서 이미 <세계명작세미나>는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부족하다. 그렇지만 학교 당국은 교양교육의 필요와 방향을 고민한 다음 현재의 <세계명작세미나> 체제를 평가하고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교양교육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평가에서 보았듯이, ‘화쟁형 인재의 육성’이라는 본교의 교육목표에는 <세계명작세미나>가 매우 유용하다. 다르마칼리지도 지금까지 학내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조직의 이완과 여론소통의 약화가 진행되었다. 다르마칼리지는, 행정 체제를 가다듬고 다르마칼리지의 교수들을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각 영역의 PD를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유효하다. 그 다음에는 강의평가의 외형과 내실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공통교양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명작세미나>의 실상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방향성을 재정립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수의 부담 완화와 처우개선도 병진되어야 한다. 덧붙여 본교에서 다소 미진한 교양교육과 고전교육의 원리와 방법 및 의의와 한계 등은 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오리엔테이션』, 2012.2.
- 교양교육원 학사운영실, 『2012-2학기 교양교육원 전체 교수 워크숍』, 2012, 8, 28.
- 교과목 개발연구위원회 편저, 『고전의 이해 1 교안』,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5.2.
- 고전의 이해 개발연구위원회 편저, 『고전의 이해 2 해설집』,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2005.8.
- 다르마칼리지, 『다르마칼리지 전체 교원회의』, 2014.8.20.
- 다르마칼리지, 『다르마칼리지 전체 교원회의』, 2015.2.25.
-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5.8.27.
-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7.8.22.
- 다르마칼리지, 『교양 담당 전체 교강사 워크숍』, 2018.2.7.
- 다르마칼리지, 『교양담당 교강사 전체 워크숍』, 2019.1.29.
- 다르마칼리지, 『2019학년도 세계명작세미나 지정도서 및 운영방법 개편 시행 안내』, 2018.10.5.
- 다르마칼리지, 『교양교육과정 교육성과 평가결과』
- 다르마칼리지 교학팀,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방향 연구』, 2018.
- 동국대 교양교육원, 『고전세미나 가이드』, 2013.
-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핵심역량 개편에 따른 교양 교육 성과 및 평가도구 개발』, 2020.12.
-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다르마교양교육연구소, 『다르마 교양교육의 평가와 새로운 전략』, 2021.9.3.
- 이광현,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사회보장연구』 28-1, 2021.
- 이원석, 『동국대 다르마칼리지의 교양교육과 〈세계명작세미나〉의 제 I 부 교양교육원과 고전교육』,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 기초교양 교육의 현황과 전망』, 2014.12.4.
- 『존재와 역사 명작 세미나 강의운영매뉴얼』, 2014.1.
- 『존재와 역사 명작세미나 강의계획서』, 2014.2.

「2015년 ACE사업 신규 10·재진입 6개大 선정」, <교수신문>, 2015.7.6.

「“명작세미나 한 번도 힘든데 앞으로가 더 막막”」, <동대신문>, 2014.6.9.

「코로나로 기초학력 역대 최악, 남학생이 더 심했다」, <중앙일보>, 2021.6.3.

Retrospective and Prospect of the Great Books Seminar In Being and History

Lee, Won-suk
(Dongguk University)

The liberal arts education center of Dongguk University started the education on classical literature in 2005. The Classic Seminar, which began in the following year, was the educational base for the Great Books Seminar. The university settled the innovative new liberal arts education system 3.0 in the fall semester of 2013 and Dharma College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liberal arts center. From the first semester of 2014, Dharma College held the Greats Books Seminar consisting of 5 sections and required for students to take 12 credits in 4 sections. As a result, the Great Books Seminar became the liberal arts course representing the university. Among them, Seminar in Being and History, a team project, was the seminar course in which students read, presented, reviewed, and discussed the five major masterpieces in history and philosophy according to five themes. One literary work lasted 2.5 weeks.

However, during the operation, the course faced the problems such as the pressure to operate a strict and ideal course, student's resistance due to excessive burden of taking courses, and lack of unity in the teaching method. Accordingly, Dharma College, in August 2014, announced the standardization guidelines for Great Books Seminar to unify the teaching method, resolving student's dissatisfaction. Maintaining the basics of the original course design, this was the modified version of the course, which was designed to operate in practice. From this, the Great Books Seminar secured the foundation and

greatly contributed to being selected ‘ACE Project’ in 2015.

The course, the Great Books Seminar, was downgraded until 2019 after the turning point in the fall semester of 2017. Lectures by professors were expanded, the credit was reduced to 9, required reading book was alleviated to four, and course operation and evaluation standard was adjusted. Due to the pandemic of Covid-19, the course had to change the operating system, which consisted of two operating parts of 6-week lectures in former course and 8-week seminar in the latter. The team project was continued, but the seminar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presentation and review section. In this process were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non-face-to-face class as well as the burden relief to students.

The evaluation of the Great Books Seminar In Being and History exceeded the average of common liberal arts classes, developing in the area of core competency and learning achievement from the fall semester of 2018 to the spring semester of 2021. In particular, the creative fusion ability promoted in the seminar was better evaluated. In addition, a variety of tasks of the seminar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t the university level were reviewed innovative measures such as improving basic academic skill of freshmen and sophomores, alleviating the teaching burden of faculty, and improving the faculty condition. In short terms, Great Books Seminar is expected to shrink in its operation, but the outlook for the seminar is still hopeful and this depends on the efforts of professors in charge, Dharma College and the University Authorities.

Keyword ● Seminar in Being and History, Great Books Seminar, Dharma College, Standardization Guideline, Presentation and Review, Evaluation, Task, Outlook.

|| 논문투고일 : 2021. 11. 27. || 심사완료일 : 2021. 12. 12. || 게재확정일 : 2021. 12. 14.

